

●문화재청공고 제2022-286호

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‘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’와‘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08월 08일

문화재청장

1. 공 고 명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2. 예고내용

1) 대상문화재

문화재명칭(안)	수량	규격(규모)	제작(건립)연도	소재지	소유자
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	1건 4점	24×22.5cm 등	1930년대	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	이육사 문학관
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	1동	지상2층 연면적 623.74㎡	1970년	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73길 107-12	(재)천도교 유지재단

2) 등록 예고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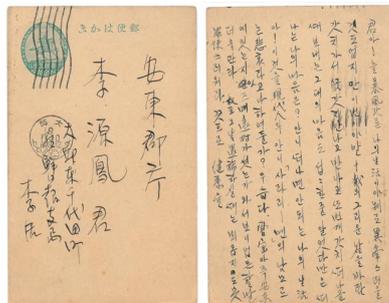
- 「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」는 이육사가 친척, 친구에게 보낸 일상적인 안부, 생활고에 대한 걱정, 건강을 기원하는 등 당시 근황을 담아 보낸 친필로 작성한 편지 및 엽서다. 한문으로 작성한 친필편지는 중외일보 대구지국 근무시절 당시 겪고 있던 생활형편을 짐작할 수 있으며, 친필엽서(2점)에서는 시인 신석초와의 우정과 고향을 자주 찾지 못하는 아쉬움, 친척간의 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미 잘 알려진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육사 모습과는 다른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친필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.



<뒤>

<앞>

편지



엽서



- 「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」은 1921년 천도교 중앙대교당(서울시 유형문화재, 종로구 소재)과 함께 건립되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활동을 수행했던 건물로써, 우리나라의 근·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종교의 활동과 민족운동 관련 역사성을 가지는 건물로 의미가 있다. 원 위치에서 이전되었으나 해방전 천도교가 수행했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시설로써, 역사를 보존하려는 의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천도교 봉황각으로 옮겨 보존했으며, 당대 건축술의 한계와 역사유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역사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



서울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(정면)



서울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(배면)

3. 등록 예고일 : 2022. 8. 8

4. 등록예고 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자율서식)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 사항

-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

「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/ 새소식 / 문화재지정예고」에 등재

다. 연락처

- 전 화 : (042)481-4891, 4892, 4889
- 팩 스 : (042)481-489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